



호텔, 레저 애널리스트 박성호입니다.

(02)3770-3476

sungho.park@tongyang.co.kr



## 카지노산업

### 레저세 이슈 코멘트



#### Why This Report

서울시가 레저세 적용대상을 카지노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카지노주들의 주가급락이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현실화된다면 카지노 기업들은 레저세 적용연도에 감익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레저세 도입에 대한 논의는 2011년 2월에 여러 문제점이 인정되어 중단된 바 있습니다. 레저세 도입은 서울시가 검토중인 세수확보 방안 120가지 중에 하나일 뿐이며, 서울시에 도입 권한이 있지 않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목	투자의견	목표주가 (원)
GKL	Buy	40,000
파라다이스	Buy	25,000
강원랜드	Hold	35,000

#### Investment Point

##### 레저세 이슈 관련 카지노주 급락

- ▶ 발단 : 지난 주말, 서울시가 레저세 부과 대상 산업을 카지노와 스포츠포토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의 뉴스 보도
- ▶ 배경 : 서울시의 경우, 사회복지 예산이 2011년 4.65조원 → 2012년 5.77조원(+24.3% YoY) → 2013년 6.44조원(+11.6% YoY)으로 급증하면서 세입확대의 필요성 대두
- ▶ 결과 : 4월 1일 카지노주 주가 급락 [파라다이스(-7.76%), GKL(-7.12%), 강원랜드(-3.18%)]

##### 카지노에 대한 레저세 도입 가능성 높지 않아

- ▶ 국내 7개 사행산업 중에서 레저세가 부과되고 있는 산업은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 등 4가지가 있음. 이들 산업들에 부과되는 세율은 총매출(발매금 총액)의 10%임
- ▶ 레저세 부과 대상 산업을 카지노와 스포츠포토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 2010년 7월 2일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등 이슈가 포함된 적이 있음. 주요 내용은 레저세의 과세대상에 카지노와 스포츠포토를 포함시키는 것이며 세율은 카지노의 경우 순매출의 5%, 스포츠포토의 경우 총매출(발매금 총액)의 10%로 제시된 바 있음
- ▶ 레저세 부과 대상 확대에 대한 정부 여당의 논의는 2011년 2월 이후 중단. 카지노 산업의 경우 개별 소비세 도입으로 인해 세금부담이 높아져 이중과세에 대한 반발이 커졌고, 스포츠포토의 경우 레저세 도입시 사업수익금이 감소하면서 국민체육진흥기금 부담금이 감소하는 구조로 체육계의 반발이 크기 때문[그림3]
- ▶ 이번 레저세 이슈는 지방세 과세대상 확대 및 비과세 감면 대상 축소를 위해 서울시가 검토 중인 120가지 방안 중에 하나에 불과. 실제 레저세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권한은 국회에 있음. 이는 이해당사자들의 치열한 대립이 예상되는 사항으로 카지노에 대한 레저세 도입은 쉽지 않을 전망

##### 실제 도입되더라도 상당한 시간을 소요로 할 것

- ▶ 2008년의 카지노 개별소비세 도입과정을 살펴보면, 레저세가 카지노 산업으로 확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을 소요로 할 것으로 판단
- ▶ 기획재정부는 2008년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개별소비세로 매출액의 20%를 부과하는 계획을 세웠으나, 이후 동 세율을 10%로 하향. 한국의 카지노는 상장 카지노 3사를 제외하면 적자사업이기 때문에 과도한 세금부과는 업계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 최종적으로 확정된 개별소비세율은 매출액 500억원 이하 카지노사업자 0%, 매출액 500~1,000억원 카지노사업자 2%, 매출액 1,000억원 초과 카지노사업자 4% 로 당초 계획 대비 크지 않았음
- ▶ 또한, 기획재정부는 2009년부터 카지노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적용 시점은 강원랜드의 경우 3년 유예된 2012년, 외국인카지노의 경우 5년 유예된 2014년부터로 결정

##### 카지노에 대한 레저세 도입 가능성 높지 않아

- 카지노주에 대한 부정적センチ먼트는 불가피 → 주가 추가조정시, 저가 매수기회로 활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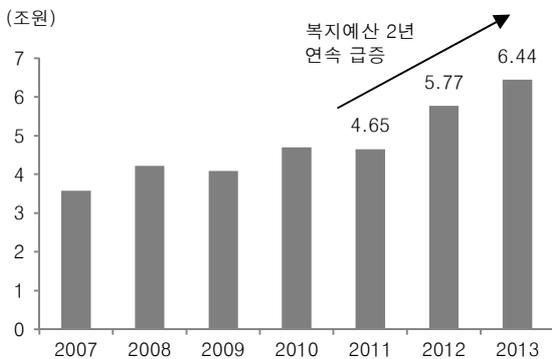
[표 1] 서울시 예산 추이 : 사회복지 예산증가로 세수확충 필요성 대두

(단위: 조원)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조원)	일반공공행정	3.10	3.51	3.59	3.80	4.15	4.00	3.86
	공공질서 및 안전	0.41	0.10	0.10	0.13	0.11	0.15	0.14
	교육	2.37	2.60	2.55	2.51	2.53	2.69	2.61
	문화 및 관광	0.39	0.53	0.61	0.57	0.47	0.51	0.51
	환경보호	1.98	2.01	2.07	1.96	1.72	1.82	1.88
	사회복지	3.57	4.22	4.09	4.70	4.65	5.77	6.44
	보건	0.31	0.33	0.31	0.42	0.28	0.27	0.30
	농림해양수산	0.01	0.01	0.01	0.02	0.07	0.07	0.06
	산업/중소기업	0.31	0.22	0.18	0.26	0.18	0.23	0.25
	수송 및 교통	4.42	3.74	4.32	3.87	3.24	3.49	3.94
	국토 및 지역개발	2.06	2.45	1.99	2.08	1.50	1.86	2.03
	예비비	0.13	0.12	0.13	0.14	0.13	0.14	0.14
	기타	-	1.11	1.10	1.13	1.19	1.28	1.35
	<b>총 계</b>		<b>19.07</b>	<b>20.97</b>	<b>21.04</b>	<b>21.58</b>	<b>20.23</b>	<b>22.27</b>
세입(조원)	지방세수입	8.94	10.80	12.23	11.60	11.76	12.31	12.61
	세외수입	7.08	6.62	6.39	6.26	6.27	6.87	7.69
	지방교부세	0.47	0.78	0.24	0.14	0.12	0.13	0.12
	보조금	1.54	1.82	1.59	2.08	1.85	2.31	2.45
	지방채 및 예치금	1.04	0.96	0.59	1.51	0.59	0.66	0.64
	<b>총 계</b>		<b>19.07</b>	<b>20.97</b>	<b>21.04</b>	<b>21.58</b>	<b>20.58</b>	<b>22.27</b>
세입비중(%)	지방세수입	46.9	51.5	58.1	53.7	57.1	55.2	53.6
	세외수입	37.1	31.5	30.4	29.0	30.4	30.8	32.7
	지방교부세	2.5	3.7	1.1	0.6	0.6	0.6	0.5
	보조금	8.1	8.7	7.6	9.7	9.0	10.4	10.4
	지방채 및 예치금	5.5	4.6	2.8	7.0	2.9	3.0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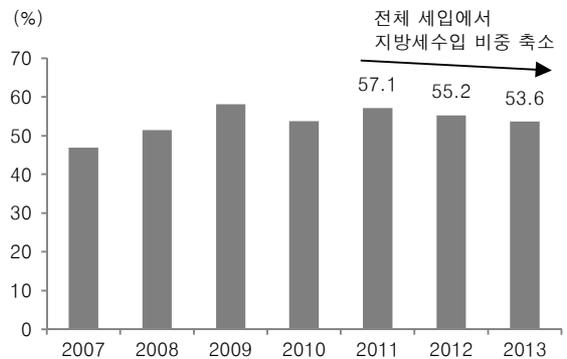
자료: 서울시,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 서울시 사회복지예산 추이 : 2013년 6.44 조원으로 2년 연속 급증



자료: 서울시,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서울시 전체 세입대비 지방세수입 비중 축소 중



자료: 서울시,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국내 시행산업 업종별 매출 및 지출 구조 (2011년 기준) : 스포츠토토의 경우, 레저세 도입시 사업수익금 감소 → 이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납부금 축소로 이어짐

경마	경륜·경정	카지노(내국인)	복권	스포츠토토	소싸움
환급금(73%)	환급금(72%)	전체 환급금 (드롭액의 82~83%) * 머신게임 배당률 (92~93%)	환급금 (50~51%)	환급금 (50~70%)	환급금(72%)
계세(16%) -레저세(10%) -지방교육세(4%) -농어촌특별세(2%)	계세(16%) -레저세(10%) -지방교육세(4%) -농어촌특별세(2%)	판매지역개발기금, 공익 사업비 (16~17%) 법인세(10%) 순매출액 (17~18%) 관광진흥개발기금(10%) 사업운영비 (36%) 수익금 (27~28% 내외)	사업운영비 (10% 가량) 수익금 (38~39%)	사업운영비 (19% 가량) 수익금 (15~30%)	계세(16%) -레저세(10%) -지방교육세(4%) -농어촌특별세(2%)
수득금 (11%) 경주 개최비용 수익금	수득금 (12%) 경주 개최비용 수익금				수득금 (12%) 경주 개최비용 수익금
이익준비금(10%) 경마사업확장 적립금(20%) 축산발전기금 (56%) 농어촌복지사업 (14%)	체육진흥기금(40%) 문화예술진흥기금 (24.5%) 청소년육성기금 (19.5%)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4%) 지방재정지원(10%) 공익사업지원 (2%)	배당금 (43~45% 가량) 사업확장 적립금 등 (55% 내외)	별정배분금사업 (35%) 공익사업 (65%)	국민체육진흥기금 (78%) 대상경기주최단체 지원(10%) 문화·체육사업 지원(7%)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5%)	소싸움경기 투자적립금 (10%) 축산발전기금 (60%) 지역개발사업 (30%)

주: 카지노산업에는 개별소비세(순매출액의 4%)가 신규로 도입됨. 강원랜드는 2012년부터 적용되며, 외국인카지노는 2014년부터 적용됨  
 자료: 시행산업통합감사위원회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 박성호)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동 종목 발행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수자는 자료공표일 현재 대상법인의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종목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단계(Buy, Hold, Sell)와 위험도 2단계(H:High, L:Low)로 구분
- Buy: 10%이상(Low)/20%이상(High), Hold: -10~10%(Low)/-20%~20%(High), Sell: -100%이상(Low)/-20%이상(High)
- 업종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로 구분
- 2008년 2월19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5단계(Strong Buy, Buy, MarketPerform, UnderPerform, Sell)에서 3단계(Buy, Hold, Sell)와 리스크 2단계(High, Low)로 변경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